

# 외대학보

896 호

2007년 9월 28일 (금요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단) 발행인 박철 편집인 박철 편집장 홍은이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021273-2503, 021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 021273-2504 FAX 021273-2505 (음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향산리 산 89

## 처장단, 김 청 이사 퇴진 요구해

### 교비 포함 105억 수협 공덕역점 예치 사실 확인돼 부당 교비 운용에 간섭한 이사, 학내 인사권에도 개입 의혹

지난달 17일(수) 우리학교 부총장 및 처장단은 양배움터에 대자보를 게재해 동원육성점 김 청 이사의 부당한 학생정 개입을 고발하며 김 이사의 사퇴를 적극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수협 공덕역점에 우리학교 교비 중 76억원이 예치돼 있고 그 중 46억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예치된 금액으로 이 과정에 김 청 재단이사 개입했다는 것이다. 76억 중 30억은 김 이사의 재단에 따라 수협에 예치된만큼 김 이사가 사적인 관계에 의해 추가로 46억을 예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교비 운용을 담당하는 경리과장은 자술서를 통해 지난 2월 이후 총무처장과의 협의만 거친 후 수협에 돈을 예치시켜왔으며 이를 김 이사가 개인적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그는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날, 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서류를 위조해 수협 자점에

30억을 추가로 예치하려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이사의 지시로 교비가 수협에 예치된 것이라든가 이사의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당하게도 용했고 학생들의 복지 행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수협 행장과 잘 아는 사이지만 그것 때문에 수협에 교비를 예치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46억 예치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리과장이 14회에 걸쳐 김 이사에 보고를 했다는 점과 김 이사와 친분이 있는 은행에 무리하게 교비가 예치됐다는 점으로 보아 김 이사는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그가 재단 이사로서 운영에 참여하는 재단 임대보증금과 부속외교 교비 30억도 수협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편 대자보에 의하면 김 청 이사가 그동안 학내 인사에도 개입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장단의 대자보가 게재된 당일,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덕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영재단을 출범시킨 우리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혀 버린 것”이라며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역시 19일(수) 전체 학생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청 이사는 자진 퇴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도 20일(목) “학교 당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교비를 무단으로 예치한 것은 도덕한 것과 같다”며 “정기 기여자로서 임명된 김 청 이사가 학교의 교비를 자의적으로 운용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진상 규명과

김 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상 조사 요청에 따라 지난 21일(금) 감사위원회가 소집됐고 다음달 12일(금)까지 감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 활동은 △수협 공덕역 지점에 46억원이 예치된 경우 △교비가 수협에 집중적으로 예치된 이유 △재단 이사에게 학교 교비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학내 인사에 김 청 이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단 이사 부당한 행정개입이 이루어진 총무처의 처장이 어떤 정황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의 진모를 밝히는 감사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했던 직원도 그 책임이 드러나 직원의 직무유기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dbwls1st@hufs.ac.kr



들쭉스러워  
와아아아!

▲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개강을 맞아 지난 20일(월) 밤 사회과학관 앞에서 색다른 주점을 열었다. ‘남북 정상회담 환영 및 북핵 수해 돕기’라는 취지로 진행한 이번 주점은 흔히 볼 수 없는 이북 음식을 판매해 더욱 인기를 끌었다. 또한 주점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은 북한 수해인 통가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문민재 기자 ming925@hufs.ac.kr

## 홈페이지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지난 17일(월)부터 개편됐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학교 행정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홈페이지를 3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정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 개편으로 ‘이 클래스’를 통한 수업 지원이 강화되었고 부속별 민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세부적인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홈페이지 내

에 신설된 킥 메뉴를 통해 우리학교 입시, 발전금, 도서관, 홍보사이트 등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편 이후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틀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입력됐지만 아직 모든 내용이 완벽히 입력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대학생활’의 민원센터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부서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보지원처 김동현 부장은 “아직 내용이 없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점차 채워나갈 것”이라며 “개편 이후 홈페이지의 구성이나 미흡한 점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받아 수정 보완해왔듯이, 앞으로도 개선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홈페이지 제작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cupid1004@hufs.ac.kr

## 용인 정총 오는 2일 선거 세칙 등 논의

다음달 2일(화) 저녁 6시부터 용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2학기 정기학생총회(정총)가 열린다. 이번 정총에서는 △2007 연간 사업 성과보고 △부담 없는 학생 선거 함께 만들기 선포식 △2007 해피투게더 기록 영상 상영 △총학생회 임원진 감사인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 재학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총학생회 선거세칙 개정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정총은 학생의 사업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안전을 통과시키는 회의로 학생회 의결절차 중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정기총회에 연예인을 초청하고 있거나 도리어 분기마다 연예인과 만나는 기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변기환(서유림·포르투갈어 02)군은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정총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정총대 총학생회장 김부식(경상·경영정보 02)군은 “이번 정총이 학기를 마무리하는 자라는 아닐까”이라며 “정총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hufs.ac.kr

## 복사실 · 자판기 문제, 해결책 나오지 않아

### 소송 종결 시까지 해결하기 힘들어 학생들 ‘답답’

서울배움터 복사실 및 자판기(복사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대장 정상화가 더 연기를 전하며,

지난달 8월 17일(금)에 학교가 신청한 ‘부동산등기대행처분’이 기각되고, 업무방해와 관련해 경찰에 신청한 형사소송도 불기소 처리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가져온 소송의 기각을 계기로, 8월 29일(수) 정식으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신청했다. 이 소송의 경우 최소 4개월, 최대 8개월이 소요된다. 학교 측은 대법원 소송(3심)까지 염두하고 있어 적어도 1년은

학교와 기존 입주간의 소송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사실의 경우 가계와 상황인 신규업체 ‘카피나라’가 현재 정식으로 입점하지 못해 학생과 신규업체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8월부터 가계약으로 입점한 복사업체 ‘카피나라’ 대표 두석배 씨는 “복사실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주 수입원인 재분 업무에 할 수 없어 인건비만 손해보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지속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 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문화관 복사실의 경우 2층 소강장 앞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당의 로비역할을 하는 이 공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크다.

자판기 또한 계산대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곳에 기존 자판기 2대와 신규 자판기 2대가 함께 배치되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영암이 중단된 자판기에 실수로 돈을 넣어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학내 복지대장을 담당하는 후생과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는 기존 업체를 불복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후생과 권오성 대리는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후생과에서 어떠한 대처도 하기 어렵다”며 “복사실의 경우 강의실을 개조해 일시적으로라도 입점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의실 부족으로 곤란한 점도 있는 상황에서 복사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지 역시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 당국과 기존 복지대장 업체 간의 융통성 있는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식 기자

sucker@hufs.ac.kr

대법원

3면 대학기획  
4 5면 주재기획  
6면 사회  
8면 인터뷰  
학제개편,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담은 외대인의 축제, 세인전·세민제  
사후 100년이 지난 마르코 폴로,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학교 첫 석좌교수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



##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

▲ 인간은 누구나 역사책을 쓰고 있다. 역사의 기록은 왕조의 사관(史官)에게도 저 산골에서 호미질을 하는 할미에게도 부여되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나와 세계, 그리고 권력... 이 사이에서 사관은 글로, 산골의 할미는 머리카락 손자를 묶어 놓고 아이기로 역사를 풀어낸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한 권의 사서(史書), 손자의 품속으로 이어져 전해진다.

▲ 중요한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와 권력과의 관계를 본다. 우리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신장아 사건을 보자. 만약 산골 할미가 이 사건에 대한 사를 쓴다면 그저 ‘헛 바깥만 여자’가 소동을 피운 사건’ 정도로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다면 ‘현 집권층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널리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국무신론에서는 ‘신장아, 복에서 특파원 정치 공작원 가능성 제기’ 정도로 보도할 테고, 권력의 이해관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실보다 해석에 주목하게 한다. 결국 누가 어떤 입장에서 기록하느냐가 역사의 핵심이 된다.

▲ 누구나 역사를 기록할 권리를 가지지만, 현대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기자와 목사가, 그리고 그나마 문화일보의 나라곳은 권력은 주권일지도. 몇몇 언론은 수년 전부터 아예 특정 정치 세력이나 광고주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청초’하고 있다.

▲ 요즘 우리학교에도 기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 김 청 이사의 버려진 의류, 대대적인 학제개편 등... 외대학보는 역사의 기록자로 남고 싶다. 외대학보는 이윤을 추구하지도, 권력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외대학보의 12명 기자들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학우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외대의 작은 역사를 쓰고 싶은, 그런 작은 바람뿐이다. 대법부 차장

## 현재 ‘원-카드 시스템’ 도입 가능한가?

### 결제-교통카드, 하나로 묶기 기술적으로 난관에 부딪혀

올해 2학기 내로 도입하려던 ‘원-카드 시스템’ (가칭)이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공약이기도 했던 원-카드 시스템은 학생증에 교통카드 기능과 학내매장 결제 기능, 현금 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생증으로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거나 학생상에서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도입 추진 중인 원-카드 시스템은 국내 대학 최초로 타지(교통카드)처럼 결제기에 카드를 대면 바로 결제되는 형식으로 모든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 대학교에서 시행중인 삼십시(무인 복

사기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제기에 카드를 넣어 결제되는 형식)보다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지식

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원-카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후생과에서는 현재 4개 업체와 입찰을 통해 카드를 개발하고



삼십시

그러나 카드 제작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하나의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과 결제 기능, 현금 카드 기능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

있으나 아직 완벽한 카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뿐 아니라 후생과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도 실제로 용이 편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생증은 하나지만 결제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에 대해 중점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기능은 우리는행원급 지급기를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해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후생과에서 대안을 논의 중인 듯하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후생과 김태문 과장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물발적인 문제점도 많아 올해 안으로 도입이 힘들 것”이라며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김대식 기자

sucker@hufs.ac.kr

경영인증제 설명회 개최

# 경영학 인증제, 우리학교 상황은?

지난 19일(수) 서울배움터 국제관 예경홀에서 경영학교육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서 작성 편람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경영학교육인증 수석부위원장 손태원(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우리학교 경영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애경홀 수용인원인 120명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경영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간접회 사회자를 맡은 한국경영학교육 수석부위원장 손태원 교수에 따르면 "경영인증제는 경영 교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

인 관리, 경영 교육의 특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경영학과 조준익 교수는 "경영인증을 받게 되면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취업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교육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학교 역시 경영교육인증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교육기관의 비전, 미션 및 목표 △학습 성과 및 평가 △교과과정과 수업 △학생 수 △교수(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환경 개선 등 7개

기본 항목의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요건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단과대학으로 승격되지 않는 상태이고 경영학 설립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4000여명이 상이 되는 중북 수강신청 인원 대비해 전임교원 수는 약 20명 이상 부족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 역시 20명(전임교원이 1주일에 6학점을 강의할 경우) 이상 부족하다. 이로 인해 경영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60명 이내로 수강 인원을 제한했던 1, 2학기 모두 '수강신청 대란'을 겪는 등 혼

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경영학과 학생회장 이병태(상경·경영 05)군은 "향후 2010년 인증을 목표로 경영학을 설립하고, 경영대학 출범 등을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경영교육인증을 받기 위한 데이터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이름 기자

bluenight@hufs.ac.kr

## 용인, 각 단대별 체전 진행돼



▲ 사학과와 철학과 농구경전에서 사학과 선수가 점프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지난 5일(수)부터 인문대·경상대 체전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별 체전이 진행됐다. 체전을 진행한 단과대는 △인문·경상대 △정보산업공과대 △자연과학대 이며 △사범대학 학 △동유럽대학 △국제스포츠레저학부는 '유로2007'을 진행했다.(일정 및 진행종목은 표 참조)

우천으로 인하여 당초 21일(금)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자연과학대 체전은 28일(금)로 폐막이 연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체전은 각 단과대별 체전일정이 같은 기간에 겹쳐 운동장 사용문제가 우려됐으나 별다른 차질이 없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사범대학대학 학생회장 차유재(독일어 01)군은 "체전은 각 단과대들과의 협의를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사범대학대학, 동유럽대학, 국제스포츠레저학부와 함께 유로2007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아시아아프리카대학은 중간고사 이후에 별도로 단체 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경 기자

manuel@hufs.ac.kr

| 단과대학                           | 일정        | 체전결과(종합우승) |
|--------------------------------|-----------|------------|
| 인문·경상대                         | 9/5~9/12  | 경제학과 우승    |
| 정보산업공과대                        | 9/10~9/14 | 전자공학과 우승   |
| 유로2007<br>(사범대학, 동유럽, 국제스포츠레저) | 9/10~9/19 | 불어과 우승     |
| 자연과학대                          | 9/17~9/28 |            |

## 확운위서 도자위 인준 이제는 자치기구로

지난 17일(월) 용인배움터 중앙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6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도서관자위원회(도자위)가 자치기구로 인준을 받았다. 도자위에 대한 자치기구 인준은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생조직이 그동안 지나치게 비공개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돼 지난 학기부터 총학생회가 요구해 왔다. 부총학생회장 이정민(아시아아프리카·일본어 99)군은 "확운위에서 중앙집행위원장(중집장)을 인준하고 중집장이 세린전준비위원회를 졸업준비위원회를 관장하듯이 도자위도 확운위에서 자치기구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도자위와 비슷한 성격인 서울배움터의 도서관확장위원회의 경우 지난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날 확운위에서는 전체 45표중 37표의 지지를 한시연(정보산업공·컴퓨터공학 05)안이 도자위원장으로 인준

됐다. 한양은 확운위에서 "도자위원장으로 인준이 원만함 그 역할을 열심히 해 내겠다"며 "도자위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운영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자위의 인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학기부터 도자위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자위는 도서관 2층 자료실에 검색 단말기를 설치하고 열람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학장이 이용하는 도자위의 비공개적인 운영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도자위원인 김성희(자연·화학 05)장은 "도자위라는 자치조직이 발전하는 과도기 상태라 구성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총학과의 인준문제가 잘 마무리 돼 다행"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재기 기자

jael@hufs.ac.kr

## 총동문회 감사패 전달식 열려



박철 총장은 지난 11일(화) 신분관 이력선 회의실에서 양인모 전 총동문회장과 최형호 전 총동문회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 24, 25대 총동문회장을 맡은 양인모 문공과 사무총장 최형호 동문의 노고에 감사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철 총장은 감사패 전달 후 환영사를 통해 두 동문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정이사 체제 확립 등에 대한 노력을 감사사를 표했다. 발전협력팀 운영을 담당하는 "그동안 두 동문이 우리학교 동문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양인모 전 총동문회장과 최형호 전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지난 6월에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장희선 기자

cupid10049@hufs.ac.kr

## FBS가요제 보러 오세요

다름달 4일(목)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제 27회 FBS가요제가 열린다. FBS가요제는 외대교육방송국(FBS)의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로서 올해에도 FBS 개국 46주년을 기념해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서울·경기지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지난 15일(토) 가요제 예선이 치러졌다. 예선에는 총 37개의 팀이 참가했으며 FBS가 기획사의 의뢰에 심사한 결과 9개의 팀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 가요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며 1부에는 5개의 팀이, 2부에서는 4개의 팀이 각각 공연한다. 또한 공연 후에는 초대가수 김사랑 씨와 The Melod

y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가요제 사회는 FBS 서승희(법·법 06) 아나운서가 맡고 심사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성우진 씨가 맡게 된다.

FBS 실무국장 이현은(동양·아랍어 05)군은 "대학 가요제는 다른 상업적인 가요제들과 달리 대학생의 순수한 열정을 담은 음악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가요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내면의 열정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희선 기자

cupid10049@hufs.ac.kr

제외공과 인턴십 1호, 스페인 대사관에서 돌아온 김원정 양 인터뷰

## 대사관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 스페인어과 04학번 김원정 양

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회의의 일정을 조정하고 민원 업무도 했다. 이렇게 주 5일간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거나 여행을 다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ODA(정부 개발 원조)에 관한 법령을 번역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를 몰라 어려웠지만 사전과 함께 하니 성취감도 있었고 매우 뿌듯했다. 또 한국과 스페인간의 포럼을 준비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학교 총장님을 비롯해 국회의원과도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

인턴십을 다녀온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매일 스페인 신문을 읽고 번역업무를 하다 보니 독해능력이 많이 올랐다. 또한 첫 사회생활을 타지에서 시작하게 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보면 함께 돕는다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민원 업무를 하면서 예의바른 자세도 몸에 밴 것 같다.

다음 인턴으로 떠날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처음 접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많겠지만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 줄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기 바란다.

정은실 기자

celebjes@hufs.ac.kr

제외공과 인턴십에 왜 지원하게 됐나?

처음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학점도 12점이나 인준돼 졸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지원했다. 자비 유학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외국 대사관에서의 인턴생활은 좋은 경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다.

대사관에서 어떤 일을 했나?

보통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나서는 대사관의 경계 분야를 담당했다. 매일 스페인 신문을 읽고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에 관한 기사들을 번역·요약하는 일을 했다. 또한 스페인 경제 동

### 취재낙수

학제개편, 우리 목소리도 들어줘

학제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서울은 동북아 대학과 경영대학 신설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은 통변역 대학의 신설을 가지고 갑론을박 중이다. 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라서인지 꽤 진지하고 열의가 가득 차 보인다.

학제개편은 필요할 수 있다. 학문은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 학문이 사회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학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학교는 그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한국의 국어대학교는 어떤 대학이어야 하는가?

최근 경영대학 신설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우리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학교는 어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변역 대학 신설이 그렇고 경영대학의 연기가 그렇다. 동북아 대학은 언어학의 기능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들과 사람

데, 혹은 인문대와 경상대는 소외되어 있다. 이공계인 공대와 재대가 느끼는 감정은 그보다 더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외국어대학이면서 종합대학이다. 우리학교에는 아무래도 학생과 비어문대 학생이 같은 캠퍼스를 거닐고자 보인다.

필요한 것은 합의다. 전문가가 제안한 반듯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구성원의 맞닿는 손이다. 토론과 합의의 통로에 결정된 사업은 그 계획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다시 손잡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반목과 소외를 담은 그것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시 불만이 불거져 나올 빌미를 가져다준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학문의 근간인 교수와 학문을 배우는 교수, 그리고 그를 이어주는 직원이 모두 관계된 일이다.

의식을 하더라도 가족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제

(대확부 정기자)

## 총여 주최 Enjoy the festival 시즌 2 열려

지난 18일(화) 용인배움터에서는 총여학생회(총여) 주최로 자선단체 후원행사 'Enjoy the festival 시즌 2'가 진행됐다. 1부 프로그램으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비프렌드 팔찌' 판매와 네일아트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2부 프로그램으로는 6시부터 대학로 개그 공연 및 '홀스'의 공연이 있었다. 당초 1부 프로그램은 명수관 연못에서, 2부 공연은 노천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하여 각각 1층 로비와 자연과학관 강당으로 장소가 변경돼 치러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총여학생회장 이채민(정보산업공·디지털정보공학 03)장은 "결실아동을 후원하는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하게 돼 기쁘다"며 "뜻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준 많은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생긴 수익금은 전액 결실아동 자선단체 '비프렌드'에 기부될 예정이다.

## 전학대회 다음달로 연기돼

지난 17일(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2007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하반기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부분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사위원회 상반기 감사 결과와 총학생회(총학)의 방중 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보고할 계획이었다. 또한 심의 안건으로는 총학의 하반기 사업 계획, 상반기 주요사업 및 자치비회 결산안, 하반기 예산안, 특별기부 상반기 사업보고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연기로 전학대회는 다음달 1일(월) 오후로 예정됐으나 세제제 일정과 겹쳐 이후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 ■ 동 정

\*박 철 총장은 지난 10일(월) 동경외국어대학교(동경외대)에 방문해 카메라·신입 총장과 회견을 가졌다. 박 철 총장은 이날 동경외대와 우리학교 간의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월) 슬로베니아 국립 류블랴나대학교 코치안치 총장이 우리학교에 방문했다. 이날 양 대학 총장은 양교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일(수) 태국 시나카친위루트 대학교 대표단은 용인배움터를 방문하여 양교의 교류 및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13일(목)에는 태국 카세트시 대학교 대표단이 방문하여 학생교류 및 양교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19일(수) 태국 정부는 우리대학 태국어과 강연에 교수와 차상호 교수에게 태국어 교육에 대한 헌신과 공로에 감사하는 '짜뚜따타 디렉터나쁜 훈장'을 수여했다.



# 양배움터 학제개편의 허와 실

## 서울 학제개편 진행 중, 용인 출범준비가 시급히 요구돼

**용인** 지난 이사회에서 학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배움터는 내년부터 통번역학 특성화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학제개편으로 기존 서유럽 학대학,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이 사라지고 어문대학과 통번역대학이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 당국은 학제개편을 통해 용인배움터가 제2캠퍼스의 이미지를 벗고 '통번역학 특성화'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서유럽대학 학생회장 차유재(독일어 01)군은 "개편안을 통해 용인배움터가 기존보다 통번역학이 특색화 돼 취업에 유리해지는 점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 단과대 개편의 짜임새 부족해

학제개편위원회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용인배움터를 통번역학으로 특성화하여 서울배움터와의 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통과된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용인배움터는 새로이 신설되는 어문대학과 통번역대학, 그리고 동유럽대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과대 구성은 통번역학의 특성화에 맞지 않고 학교의 이들도 학문적인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다. 또한 이번 용인배움터 학제개편은 비어문계열 학과를 제외하고 어문계열 학과 중심으로 이뤄진 것 또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에 정보산업공과대학 학생회장 김진영(컴퓨터공학 02)군은 "어문대학 위주로 학제개편이 진행되어 아쉽다"며 "우리학교가 외국어대학

이기는 하지만 학교 측에서 비어문계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통번역대학 준비 시급해

또한 통번역대학을 신설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통번역대학의 경우 졸업학점을 152학점으로 늘리고 이중 전공 학점을 70~83학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각 해당학과 교수진들에 의하면 아직 교과과정이 준비되지 않아 2학기 중으로 협의의를 통해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대로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

또한 통번역학 특성화에 걸맞은 시설과 교수진 충원 역시 미비한 점으로 지적된다. 용인배움터 포털포털과와 학과장 송필환 교수는 "현재 통번역학을 교육하기에는 용인배움터의 시설과 강의실과 어학실 등의 기자재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시설 설립 외에도 통번역 전공의 교수진 충원 역시 시급하다"고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 구체적 발전계획 절실

이번 개편안은 장기간 준비를 거치지 못한 채 처리된 개편안으로 개편 후 학교 교과과정, 교수충원, 시설 미비, 비어문계열학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명영을 요구한 호 교수와 학과장이 "이번 개편안은 통번역학이란 틀을 변경으로 입학성적 상승을

과를 기대하고 급히 처리된 사항"이라며 "명칭만 바뀌는 학제개편안이 과연 의도대로 용인배움터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전했다. 바람직한 학제개편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서울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는 당연한 논리가 의심받는 때다. 8월 30일(목), '제8차 학교법인 동원이사 이사회'에서 학생과 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제개편안이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상정되고, 또 부분적(용인배움터 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대학 신설과 관련된 경영학부 제1안이 전체교수간담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동북아대학

#### 이사회와 통과 안돼 보류 상태

이번 서울배움터 학제개편은 어문계열 지역학 강화를 통한 학교 위상 제고를 취지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수) 전체교수간담회에서 공개된 학제개편보고서에는 동양어대학을 > 동북아대학 (중국어과, 일본어과) > 동남아시아대학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 중동대학 (아랍어과, 이란어과, 터키어과)로, 서양어대학을 > 동유럽대학 > 서유럽대학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각 학교 교수간의 논의를 통해 단과대학으로 재편이 필요한 학과만 분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만 동북아대학으로 분리 및 신설하기로 했다. 동북아대학은 △동북아 지역이 가지는 경제문화적 특수성 △학과체제가 가지는 문제점 △중국어·일본어과의 성장 기대화를 목적으로 안방만 전 총장 시절부터 준비해 비교적으로 논의가 구체화된 상태다.

동북아 대학은 이미 교과과정과 교수충원 계획이 세워져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지만 하연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배움터 중국어과 학과장 박승호 교수는 "동북아대학 신설은 통과된 뒤면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끝나있는 상태"라며 "개편안의 이사회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 학제개편에 알고 있는 학우 전수

하지만 학제개편의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제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포함됐느냐는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준비된 학제개편 과정에서 학우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거의 없었다.(그 래프 참조)

또한 설문 결과 67%의 학생이 바라는 '경영대학 신설'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경영대학 신설에 찬성 응답자 중 '학교 예산 부담이 있어도 경영대학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 역시 34%로 나타났다.

또한 동북아대학이 신설되면 직접적인 영향은 받게 되는 동양어대학(동대) 학생들도 학제개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2008학년도 학제개편으로 양배움터의 단과대 구성 및 교과과정이 변화할 전망이다. 외대학보는 이번 대학기획을 통해 학제개편의 구체적인 변화상을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본다.

- 편집자주 -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동양어대 학생회장 이종태(동양·중국어 04)군은 "동북아대학 신설에 대해 동대의 많은 학생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학제개편과 같은 사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라며 "적어도 당사자인 동대 학생들에게

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고 전했다.

김대석 기자 sucker@huls.ac.kr  
신종현 기자 manue@hul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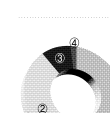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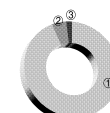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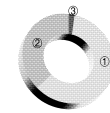
## 경영대학 승격, 이사회 통과 안 된 배경은?

이번 이사회에서 경영대학 신설안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사회에서 경영대학 신설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이에 한 이사가 반발해 동북아대학 신설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영학부는 △우수 학생교원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및 학교 경쟁력 제고 △경영인재(AACSB) 도입 △비경영학과 학생의 경영학 이종전공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영대학 신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경영대학 신설안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경영학과에서는 학부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경영대학 신설'을 제안했고 '경영관 신록'(약 150여 소)은 경영학과와 학교가 자금을 반씩 마련해 추후에 건

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경영관 신록이 경영대 신설 필수 조건으로 보고됐고 이사회는 교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후론이다. 이에 경영학과 학과장 조남신 교수는 "경영대학 신설과 경영관 신록은 별개의 문제"라며 "계속해서 경영대학 신설이 이뤄지면 학교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는 답변을 거부하는 상태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며 "이번 경영대학 승격안은 비어문계열 차별 논란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후 1주일 내에 공개돼야 하는 회의록은 현재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출처: 용인 서울 배움터 104명, 용인배움터 100명의 응답을 토대로 작성

## 양배움터 학제개편위원회, 학생은 모르는 '비공개 위원회'

### 학제개편 담당 학제위, 한 학기 동안 39회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록은 '대외비'

이번 학제개편은 지난 2월 9일(금) 꾸러진 학제개편위원회(학제위)가 서울·용인 소위원회로 나뉘어 학제개편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어문학과와 전문성 문제가 대두돼 자재은 부총장(중국어과 교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각 단과대학 부학장들을 중심으로 총 17인의 위원이 서울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서울배움터와 중복되는 학과들의 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용인소위원회는 김성기 부총장(투마니아어과 교수)을 위원장으로 각 중복학과 학과장이 참여해 총 19인으로 꾸러졌다.

학제위는 2월 14일(수) 첫 회의를 가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배움터는 A조에서 어문계열 학제개편 연구를, B조에서 비어문계열의 학제개편 연구를

진행했다. 용인배움터는 통번역대학 신설인과 비통번역대학 학제개편 연구를 각각 A조, B조에서 진행했다.

학제위의 활동은 지난달 22일(수) 용인배움터에서 열렸던 전체교수간담회로 학제개편 기간을 보고하면서 종료됐다. 용인배움터 학제위원장 김성기 교수는 "이후 학제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학제개편의 운영을 담당할 새로운 연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제위의 활동기간 동안 학제개편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제위는 활동기간 동안 각 배움터, A, B조를 합쳐 서울 24회, 용인 15회, 총 39회에 이르는 회의를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학제개편에 대해 정보를 접한 학생은 8%,

학제위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던 학생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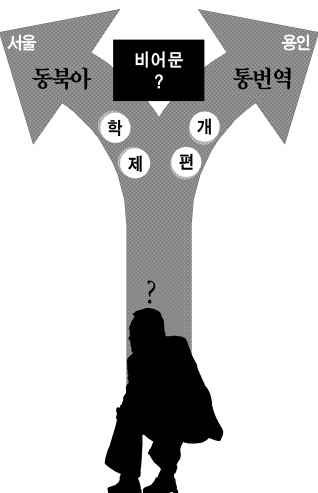
또한 학제위에 참여했던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명영을 요구한 용인배움터 호 교수는 "여러 의견을 듣지 못해 학제개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학제위에서 개편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 사이의 의견 취합 과정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학제개편이 의견 취합 과정 없이 급하게 진행된 이유는 연구일정이 2학기 수시모집에 맞춰져 꾸러졌기 때문이다. 학제위에 참여했던 용인배움터 일본어과 학과장 서재근 교수는 "수시모집 일정 때문에 논의의 시간이 짧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 속에 학제개편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제개편은 회의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채 2학기 들어서야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지난달 17일(월) 열린 제 6차 학대운영회의에서야 학제개편에 대한 화합장들의 의견취합이 이뤄졌다. 서울배움터는 단과대운영회의의 차원의 의견교환만 이루어졌다. 이번 학제개편은 개편의 준비와 방향성 문제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아름 기자 bluehight@huls.ac.kr  
이 제 기자 jae@huls.ac.kr



서 재 근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 일본어과 교수)

아직도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있던 지난 2월, "경쟁력 있는 명문사학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21세기 용인캠퍼스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학제개편위원회로 위촉한다는 메일을 받고 회의 장소로 나갔을 때의 황당함, 신입생들이 건강 진단을 받는 가운데 위원들이 모였고 결국 교직원식당 한쪽 소파에서 용인학제개편위원회의 첫 회의는 시작되었다. 그간 외대는 21세기 우리사회의 큰 변화

## 통번역 대학, 이제 시작이다!

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아니 퇴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것이다. 외국어 계열을 예로 들면 지난 50년간 '동양어·서양어'라는 틀 그대로였다. 따라서 향후 5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 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학제개편의 기본 취지였다. 여기에 용인배움터의 경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 서울배움터와 차별화하고 행정적인 독립을 통해 용인배움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달려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숙제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한 계층에 부딪혔다. 이문동은 각 단과대 부학장과 교과교수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용인은 "21세기 용인캠퍼스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달리 당면직을 제외하면 이종계열은 물론이고 중복학과가 있는 경성계열조차도 빠져 있었다. 소위 '어문계 중복학과' 학과장과 소속 단과대 부학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어문계 중복학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문동과의 차별화 방안의 선택책도 그리 넓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지역학에 주목하고 있어 이문동은 어문학, 용인은 지난 50년간 '동양어·서양어'라는 틀 그대로였다. 따라서 향후 5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 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학제개편의 기본 취지였다. 여기에 용인배움터의 경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 서울배움터와 차별화하고 행정적인 독립을 통해 용인배움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달려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숙제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한 계층에 부딪혔다. 이문동은 각 단과대 부학장과 교과교수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용인은 "21세기 용인캠퍼스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달리 당면직을 제외하면 이종계열은 물론이고 중복학과가 있는 경성계열조차도 빠져 있었다. 소위 '어문계 중복학과' 학과장과 소속 단과대 부학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어문계 중복학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였다.

양일부 학과별 평가에서 일부 분야는 이문동을 앞섰다가 했지만 대외인지도는 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을 희망하므로 이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각종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생각하는 상당수 학생들에게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번 용인학제개편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 부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파업과 그 후의 대대적 직원 인사, 2008년도 임시라는 각종 제약이 있었지만 분명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이었고 미숙한 회의 운영은 학교측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인캠퍼스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모든 이들의 조그마한 지혜라도 모아야 할 때이다.



# 17회 세계민속문화축전 개최돼

## 빛속에서 빛난 외대인의 열정

지난 16일(월)에 용인배움터 주최의 제 17회 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이 일산 호수공원 한울관장에서 열렸다. 용인배움터 부총학장 이경민(아시아프리카·일본어 99)군과 최재선(서유럽·불어 06)양, 문예지(동유럽·헝가리어 07)양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민전은 낮 공연과 본 공연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낮 공연에는 6개의 학회가 각 국가의 민속 공연을 선보였다. 낮공연은 관객이 많지 않았지만 주말에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호기심의 눈빛을 보내곤 했다.

### 우천으로 앞당겨진 본공연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본 공연은 우천관 계로 6시 40분경 시작됐으며 1부 공연의 첫 무대에서는 인도어파의 '나츠나'가 '둘라레'라는 곡에 맞춰 민속무용을 선보였다. 인도의 사리를 차려입은 여학생들의 화려하고 색다른 무용이 돋보인 이 공연은 특히 남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루마니아어파의 '노고봉' (용인배움터를 둘러싸고 있는 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은 루마니아의 인기 가수 안나 마리아의 노래 두 곡과 무용을 선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쾌한 목소리와 곡이 어우러진 깜찍한 공연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행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영어학부의 '팬터지'가 준비한 1부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팬터지는 뮤지컬 '그리스'를 공연해 빛물로 미끄러온 무대에도 불구하고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커튼들의 화려한 맨스와 의상, 경쾌한 음악이 단숨에 분위기를

를 고조시켜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외에도 6개 학회가 1부 공연을 장식했다.

### 빛속에도 축제는 계속돼

한편 낮공연이 끝나고 조금씩 내려기 시작한 비 때문에 본 공연에서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다. 눈에 띄게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세민전 스태프들은 우비를 입고 관객들을 통제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썼다. 한 공연이 끝날 때마다 빗물 때문에 미끄러운 무대를 스태프들이 직접 걸레로 닦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앞쪽의 관객들이 펼쳐 든 우산으로 무대가 보이지 않아 뒤쪽의 관객들은 의자 위에서 까치발을 들고 무대를 감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제나(동유럽·루마니아어 05)양은 "비가 내리는데 관객에게 우비가 제공되지 않고 공연을 준비하는 대기실이 비가 세는 것은 문제"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한 세민전을 감상하던 한 일반 주민은 "자식같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고 신선했다"며 공연을 칭찬했으나 "비가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날씨 문제로 1부 공연이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각 나라의 민속의상과 함께 하는 민속무용 공연이 대부분이었던 2부에서는 9개 공연 중에서도 아랍어파의 '오아시스'가 준비한 무대가 돋보였다. 전통의상과 민속무용, 기교 있는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큰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온 오아시스 학회원들은 "1학기부터 계속 준비해왔는데 비 때문에 준비한 만큼

의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세민전이 끝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후배들이 공연할 모습을 생각하니 기대도 된다"며 이후의 세민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여러 나라의 민속 공연들로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공연만이 남았을 때 세민전 위원회 위원장 이협(서유럽·불어 02)군과 용인배움터 총학장 최재선(서유럽·포르투갈어 02)군, 부총학장 최정민(서유럽·무대) 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세민전을 위해 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모든 공연팀과 스태프,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민전의 마지막 무대는 불어파의 '르 스페타르'가 준비한 공연이었다. 러닝 노트의 의상과 노래, 춤과 후반부의 감미로운 듀엣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관객들에게 세민전의 '피날레'를 선사했다.

### 세민전이 나아가야 할 길

때로는 태풍으로 일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던 제 17회 세민전은 빛속에서도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공연팀과 스태프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다. 비록 날씨는 최악이었지만 세계 민속 공연을 연습하고 선보인 학생들의 열정이 빛난 자리였다. 앞으로 계속될 세민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외대의 특성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의 민속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취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난슬 기자  
arashini@huls.ac.kr

## 세민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학교 양배움터는 세계 각국의 노래와 무용 등을 공연하는 세계민속문화축전(용인)과 세계민속문화축전(서울)을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들의 취지는 전경하고 있는 학과의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한편, 공연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

본래 이 축제들을 통칭하는 '세민전'은 개교 기념행사로 시작되어 특별한 명칭 없이 대동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70년 '동남아 문화의 밤'에서부터 지금의 세민전과 같은 방식을 선보였다. 이후 우리학교가 개교 17주년을 맞은 71년, 세계민속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제1회 세민전이 개최됐다.

세민전은 그 이후 81년 제 7회까지 세계민속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그 과정에서 용인배움터가 개교 제 7회 세민전은 양배움터가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민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75년과 76년에는 대동제 긴급조치로 개최되지 않았고 84년에 부활할 듯 했지만 행사기간의 문제와 학과조별 문제로 반대시위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세민전은 이후 92년에 다시 개최되기까지 8년간 열리지 않았다.

예술행사가 부족한 용인배움터에서 세민전 복원을 제기했고 92년 용인배움터 주최로 세계민속예술축전이 부활했다. 한편 서울배움터에서는 95년에 세계민속제전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축제가 다시 열렸다. 또한 용인배움터의 세민전은 94년에 풍물음악식, 96년에 세계영화제가 더해져 내용면에서도 더욱 풍성해지고 00년에는 비어문계열이 참여하는 학술제가 치러져 외대가 더 이상 어문계열만의 학교가 아님을 보여줬다.

이후 서울은 세계민속문화제(세민제), 용인은 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이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열렸다. 서울의 세민제와 용인의 세민전은 한해씩 번갈아 개최해오다 05년부터 용인배움터에서 세민전을 매년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05, 06년 세민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황현수(서유럽·불어 99)씨는 "2년에 한 번씩 세민전을 개최하면서 공연의 질이 떨어졌고 세민전이 전국적인 행사로 인식되었던 80년대에 비해 외부 인지도 역시 함께 떨어졌다고 판단해 총학생회와 합의해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에 이어 올해 제 17회 세민전은 지난 16일(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학교이기에 개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세민전은 예전과 달리 일반 학우들에게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민전이 다시 그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재정립해 더 이상 학우들에게 외면받지 않는 외대인의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난슬 기자  
arashini@huls.ac.kr







## 연기된 세민제, 21일 막 올려

지난 19일(수), 20일(목), 21일(금)로 예정됐던 서울배움터 세계민속문화축제(세민제)가 태풍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19일(수)과 20일(목)공연은 오는 1일(월), 1일(화)로 각각 연기됐으며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21일(금) 축제만이 원래 예정대로 치러졌다. 동양아대 인강영화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는 예정대로 진행된 다. 세민제준비위원회의 지난 18일(화) 이

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19일(수)에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축제 연기를 공지하고 학회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한다. 세민제준비위원장 조한울(서양·독일어 05)은 "태풍 소식을 접하고 세민제를 미루게 됐다"며 "학회원들이 아쉬워했던 날 실례를 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과 기존에 폐막식으로 예정됐던 21일 공연이 세민제의 시작이 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출신 KBS나온서 장웅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배움터 11개 학과의 13개 학회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노래와 춤 등을 선보였다. 추석 연휴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찾아 500좌석 이상을 채웠다.

특히 이번 세민제는 1시간 40여분만에 모든 공연이 마무리된 깔끔한 무대진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에 참여한 일본어과 공연학회 '소리'의 김지원(중앙·일본어 07)은 "공연장 시설이 좋아 준비부터 공연하기까지 편했다"며 "큰 무대에서 공연하게 돼 뿌듯하고 연애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이예슬(서양·러시아어 07) 양 역시 "다양한 세계 민속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며 들른 목소리로 축제 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민제준비위원장 조한울(서양·독일어 05)은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 뿌듯하다"며 "남은 세민제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람찬 세민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문희준(영어·영미문학 04)군도 "학부모님들과 선배들이 함께해 더 좋은 공연이었다"고 이번 축제를 평가했다.

글·사진 정유진 기자  
dbwlsfirst@huls.ac.kr

## &lt;문화전단&gt;

## 세민전,

## 모두 함께 하는 축제가 되려면?

지난 16일(월), 용인배움터 세민전이 세계 각국 문화와 풍습을 학교 외부로 알리기 위해 야외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세민전은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인,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꾀하면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세민전이 끝난 후 기자가 실제로 용인배움터 학우들을 만나본 결과 학생들이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민전의 좋은 점을 이어나가고 아쉬운 점은 보완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적인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분당 용동공원에서 열린 세민전에는 우리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약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이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일산 호수공원 총 2500개 좌석 중에 반 이상의 의자가 비어 있었다. 비가 와서 학생들의 참여가 적기도 했지만 세민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큰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계로 07학번의 한 학생은 "포스터를 보긴 했으나 신입생이라 세민전이 우리학교 축제인 줄도 몰랐다"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민제준비위원회에서는 플랜카드와 포스터, 가요동 배너 등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은 홍보물을 보긴 했으나 세부 내용은 전달력이 떨어져 잘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전체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세민전을 홍보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지난해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기총회나 개강 총회 등은 각 과 집행부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잘 되는 것과 달리, 이번 세민전은 우리학교의 특색있는 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세민전은 우리학교와 지역 주민과의 연계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는데 학교에서 멀다 보니 학생들이 공연장까지 찾아오는 데 불편이 따랐다.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안내하는 표지판도 턱없이 부족했고 길 찾기를 돕는 스탬프도 없어 세민전을 찾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에서 전체 서클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다면 좀 더 원활하게 축제가 진행됐을 것이다.

세민전 공연은 기본적으로 어문계열의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어문 계열의 학생들은 의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세민전을 맞아 비어문계열 단과대에서 학술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이는 다들께 참여하는 축제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비어문계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세민전에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었다. 학교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어문계열과 비어문계열 학생들이 외대인으로서 하나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긴 세민전이지만, 열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모든 공연을 무사히 마쳤고 엄격한 오디션으로 각 학회에서 예년에 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세민전에 대한 아쉬움을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학교와 학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다.

홍순주 기자  
07sunjo@huls.ac.kr



▲ 영어학부 07학번 변혜지 양

<세민전 참가 학우 인터뷰·변혜제(서유럽·영어 07)양>

## “연습할 땐 힘들었지만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이 더 많아요”

알마나 연습했나? 또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2학기 개강부터 평일은 3~4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연습에 매달렸다. 기존 공연의 춤을 재구성하고 세민전에 할당된 시간에 맞춰 새로운 안무를 구성하는 등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오랜 시간 연습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뮤지컬의 분위기가 밝은 편이라 지칠 때도 즐거워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세민전 오디션이 까다로웠다고 들었다. 오디션 볼 때 어땠나?

1차 오디션의 분위기가 그동안 선배들이 말한 것과 많이 달랐다. 편안한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막상 오디션에 들어가 보니 심사위원분들 표정도 굳어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부담이 컸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했는데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오디션이 끝난 후 더욱 연습에 집중하게 됐고 2차 오디션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들었다.

공연 후 소감은?

비 때문에 무대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어려운 동작 몇 가지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동안 연습한 나날들을 생각하며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춤을 췄다. 굿은 날씨에도 공연이 자연스럽게 마무리 돼 만족스러웠다. 또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대학시절의 멋진 추억이 된 것 같다.

세민전에 참여하고 느꼈던 아쉬운 점이나 배라는 점이 있다면?

공연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쉽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 무대 뒤 대기실이 너무 좁았다. 입장하는 곳과 학회들이 준비하는 곳이 겹쳐져 있어 이동하는 데도 불편했다. 또한 공연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등의 사소한 실수들도 있었다. ‘팬터지’가 공연할 때에도 메인 부분에서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서 그 부분을 맡았던 동료들이 아쉬워했다. 결과적으로 리허설을 못하진 했지만 리허설 때는 공연 팀들이 바스로 이동했는데 본 공연 때는 바스가 없어 개인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다음 축제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그리고 세민전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 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홍순주 기자  
07sunjo@huls.ac.kr

# The Argus

## The 2007 Argus Prize

### 아 거 스 학 술 제

#### 참신하고 창의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         |                                                          |
|---------|----------------------------------------------------------|
| 참가대상    | 4년제 대학생(*논문에 한하여 대학원생 포함)                                |
| 논 문     |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10~12 pages<br>상금 : 300,000원                |
| 모집분야    | 리뷰 : 영화, 드라마, 뮤지컬, 책, 공연등의 감상 2~3 pages<br>상금 : 300,000원 |
| 에세이     | 철학적, 비평적 주제가 담긴 자유형식 2~3 pages<br>상금 : 200,000원          |
| 모집기한    | 2007년 10월 19일까지                                          |
| 접수방법    | theargus@hanmail.net로 첨부하여 제출                            |
| 양식      | 한글 소프트웨어, 글자크기 10, 줄간격 248%                              |
| 지원 및 문의 | 011-9985-0131<br>theargus@hanmail.net                    |

### The Argus

The Argus (학술회관 이거스사무실)  
이문캠퍼스\_02) 2173-2508 왕산캠퍼스\_031) 330-4113  
www.theargus.org



# 마르크스, 이제 그만 사라질때?

지난 5일(수) 서울대학교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신규 임용교수의 전공은 마르크스로 한정짓지 않고 일반 경제학전공자를 후임으로 뽑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내년 2월 퇴임하는 김수형 교수를 끝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교수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학계에서는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를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마르크스 경제학의 종언을 우려했다.

**21세기, 사후 100년이 지난 마르크스를 논한다는 것**  
마르크스 종언론은 강 건너 우리학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교양과목이 개편되면서 역사와 철학분야의 과목수가 서울과 용인 양 캠퍼스 합쳐 108개에서 61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더불어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폐강된 적 없다는 '마르크스 이론' 강의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정경원 교무처장은 "기본 교양강의는 문학, 역사, 철학 위주였으나 최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경영이나 방송, 법, 체육 등 정보와 사회 분야의 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원인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  
경제학계에서도 마르크스의 퇴조를 논하고 있으며 다른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학교 경제학부장인 정진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나 분배론적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경제학에서 마르크스를 따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학교만의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 또한 "경제적 담론의 중심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류경제학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현실적 경제문제는 마르크스가 아니라도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고려대학교에서 '맑스즘 2007 포럼'을 개최하려 했을 때, 고려대 측은 "마르크스를 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01년부터 개최했던 맑스주의 포럼에는 이같은 고려대 당국의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1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기도 했다. 또한 우리학교 사회대의 역사철학 연구회 '민들레' 학회장 송승환(사회·행정 02)군은 "사회 운동이 비필 필요치 않지만 기본은 마르크스에서 출발한다"며 아직도 마르크스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마르크스 이론'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 수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마르크스 이론 수업을 들은 학생은 모두 255명이며 마르크스가 한몫 켜었다는 90년대 후반에도 꾸준히 200~300명의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했다. 과거에 이 수업을 들은 적 있다는 의대발전학 생추진위원장 박정환(사회·행정 02)군은 "다른 비인기과목도 폐강되지 않았고 마르크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것도 아닌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학교에서 17년간 마르크스 이론을 강의했던 김석수 교수는 "IMF이후 사회

는 신자유주의체제로 바뀌었고 보수화되어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켰다"며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무기인데, 무기를 빼앗긴 채 그 무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를 전공하면 취직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위한 학문이라 기업체에서 불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마르크스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저자 벤 파인은 서문에서 마르크스 이론이 "21세기의 진보적 사회운동들과 변혁적 정치활동의 부활을 촉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또한 같은 마르크스이론을 강의했던 김의연 교수도 "학생들의 수요가 적어서 폐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생이 됐지만 취직은 어렵고 현실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데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시장이 아니다**  
한편 마르크스 이론을 기반으로 대안적인 교육체제를 모색하고자 올해 김수형 교수를 중심으로한 사회과학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사회과학대학원은 대

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기초학문의 토대가 무너지면서 총체적 안목을 키우는 교양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며 "부르주아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대한학교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둘러싼 간의 논쟁은 마르크스가 퇴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생기는 의문은 시대적 추세와 실용주의 노선에 발맞춰가다 "지성의 정당" 이어야 할 대학의 도착지는 어디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의연 교수는 "학교는 교육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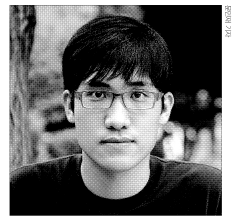
정진식 기자 celebjes@hufs.ac.kr



학우인터뷰

## 마르크스 사상의 터전을 지켜내야

요즘 대학 내 마르크스 이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마르크스학을 배울 곳이 줄어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과학 정책 연구원을 꿈꾸는 정상호(사회·정치외교 04)군을 만나보았다.



▲ 정상호(사회·정치외교 04) 군

**대학가에서 마르크스 이론의 타전이 줄어든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비해 마르크스 이론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지식인보다 능동한 개인을 요구한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치열해진 취업난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대학생들 개개인들이 자신의 지식인 영역을 추구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권력이나 힘에 의존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반민주와 세력이라는 소위 말해 '절대 악'이 존재했으니 지금의 경우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과거처럼 조치를 만들어 권력층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히 기득권층의 자본주의에 저항할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범패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방안으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뿐만 아니라 제도주의 경제학, 생태주의 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등이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기원이 선화하는 유능한 개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회에 개인을 순응하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반대하는 이론이 위의 비주류 경제학인데 그 중에서 힘을 얻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하나만을 고수하여 단일화시키기 보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과 제도주의 경제학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결합시켜 신자유주의의 독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마르크스 이론에 관한 대학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학교육에서 마르크스 이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학문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현상이므로 마르크스주의의 강의는 대학 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입지를 좁혀가고 신고전학파가 학계를 장악하는 현상은 매우 문제가 있다. 학문은 서로 비판을 주고 교환하며 성장하는 것이 옳은데 이를 하나의 학파에 치우치는 것은 대학교육에 큰 위험수를 안겨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의할 때에는 것은 학생들이 마르크스 이론에 접근할 기회를 단절시키는 일이므로 학계는 마르크스주의가 처한 위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문민재 기자  
ming925@hufs.ac.kr

칼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818년 독일 출생.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 해결의 영향을 받아 무신론적 급진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영겔스와 경제학 연구를 하며 집필한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유물사관을 정립하였으며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여 각국의 혁명에 불을 지폈다. 《경제학비판》, 《자본론》등의 저서를 남겼다.

## 패션 뒤에 그늘진 역사의식



최근 한 연예인이 '육일승천기'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방송에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생각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연예인이 그런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한 것은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 연예인이 육일승천기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

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패션은 패션으로 받아들여야할 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육일승천기'가 단순히 한 나라의 국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육일승천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깃발로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더욱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극우파와 군국주의의 찬양론자들을 대표하는 깃발로 통하고 있어 한 걸 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육일승천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실

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육일승천기'의 존재와 그 의미를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군국주의의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수능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우리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식민지 경영과 태평양전쟁을 합리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육일승

천기가 그려진 점퍼를 입고 다닐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서울배움터 해학진(동양·말레이인도네시아어 06) 양은 "육일승천기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 차원을 넘어 우리 역사와 민족의식 전반에 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주희 기자  
dxakajh@hufs.ac.kr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교육인적자원부 BK 21 통역·번역분야 특화사업 원수!  
아시아 최초 세계통역번역학교협회(CIUTI) 가입, 세계통역번역학교협회(CIUTI) 2006년 서울총회 주최

### 2008학년도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안내

|                                                                                                                                                                                                                                                                                                                                                                                                                                                                                                                                                                                                                                                                                                                             |                                                                                                                                                                                                                                                                                                                                                                                                                                                                                                                                                                                           |
|-----------------------------------------------------------------------------------------------------------------------------------------------------------------------------------------------------------------------------------------------------------------------------------------------------------------------------------------------------------------------------------------------------------------------------------------------------------------------------------------------------------------------------------------------------------------------------------------------------------------------------------------------------------------------------------------------------------------------------|-------------------------------------------------------------------------------------------------------------------------------------------------------------------------------------------------------------------------------------------------------------------------------------------------------------------------------------------------------------------------------------------------------------------------------------------------------------------------------------------------------------------------------------------------------------------------------------------|
| <p>〈모집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개언어과정: 한영과,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서과, 한중과, 한일과, 한아과 (8개학과)</li> <li>3개언어과정: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7개학과)</li> </ul> <p>모집인원: 150명 이내</p> <p>〈지원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li> <li>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ul> <p>〈전형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원서 접수: 2007. 10. 1(월) ~ 10. 8(월) "인터넷 접수(09:00~17:00)"</li> <li>입학지원서류 제출: 2007. 10. 1(월) ~ 10. 11(월) "토요일은 휴무"</li> <li>1차 시험(필답): 2007. 11. 3(토) 10:00부터</li> <li>1차 합격자 발표: 2007. 11. 9(금) 14:00</li> <li>2차 시험(필답 및 구술): 2007. 11. 10(토) ~ 11. 12(월) 10:00 ~</li> <li>최종 합격자 발표: 2007. 11. 16(금) 15:00(예정)</li> </ul> | <p>〈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통역번역 전문기관</li> <li>국제회의에서 활약할 최고의 전문통역사, 다문화간 교류에 기여할 전문 번역사 양성 전문대학원</li> <li>국내 최초의 통역번역학 박사학위과정 개설 (1999. 11)</li> <li>우리나라 최고의 통역, 번역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li> <li>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로부터 아시아지역 유일의 통역/번역 교육기관 인정</li> <li>파리통역번역대학원, 미국 몬트레이데, 독일 마인츠대, 대만 국립사범대, 대만보통대학 통역번역대학원 등과 교류협정</li> <li>최첨단 교육시설 구비</li> <li>세계수준의 국제회의장 포함 6개의 동시통역시설 및 24개국 100개 TV화면 설치</li> <li>국내 외국어사업본부 통번역원에서, 졸업 후 취업 및 통번역계 진출 지원</li> </ul> <p>〈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li> </ul> |
|-----------------------------------------------------------------------------------------------------------------------------------------------------------------------------------------------------------------------------------------------------------------------------------------------------------------------------------------------------------------------------------------------------------------------------------------------------------------------------------------------------------------------------------------------------------------------------------------------------------------------------------------------------------------------------------------------------------------------------|-------------------------------------------------------------------------------------------------------------------------------------------------------------------------------------------------------------------------------------------------------------------------------------------------------------------------------------------------------------------------------------------------------------------------------------------------------------------------------------------------------------------------------------------------------------------------------------------|

※ 시험과목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은 홈페이지 또는 교과학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gsit.hufs.ac.kr> TEL : 02) 2173-2435 ~ 6 (교학과)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2008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1. 입시안내  
홈페이지 <http://www.hufs.ac.kr> : 입학안내 -- 대학원
2. 입시일정  
가. 원서접수 : 2007. 10. 8(월) ~ 10. 12(금) 10:00~17:00, 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후, 출석증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전형일시 : 2007. 10. 27(토) 10:00  
다. 합격자 발표 : 2007. 11. 8(목) 14:00
3. 장학안내  
가. 한국외대 출신자 장학금(석사과정) 신입생  
나.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다.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4. 특이사항  
가. 경제학과 금융경제전공(석사과정) 신설  
나. 수학과 금융수학전공(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
5. 주소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전화 : 02)2173-2384~2387 FAX : 02)2173-336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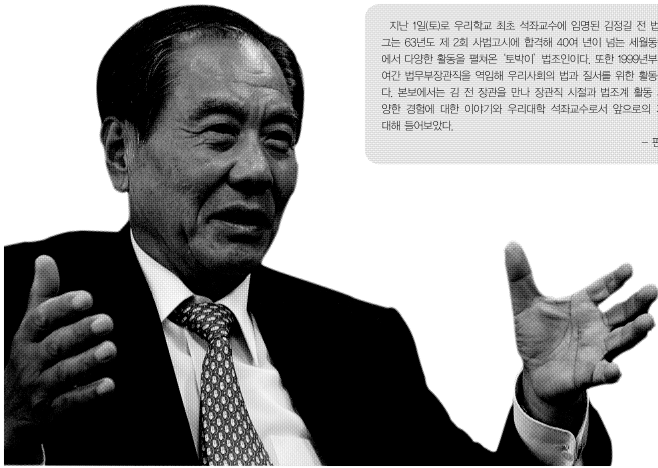






우리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된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

# “공정한 사법 집행을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파”



지난 1일(토)로 우리학교 최초 석좌교수로 임명된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그는 63년도 제 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4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법조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독박이' 법조인이다. 또한 1990년부터 총 3년 여간 법무부장관직을 역임해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보에서는 김 전 장관을 만나 정권적 시절과 법조계 활동 시절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대학 석좌교수로써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 \* 석좌교수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석좌기금 혹은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초빙하고 임명된 교수

## \* 김정길 전 장관 약력

- 출생 : 1937년 4월 28일, 전남 신안 출생
- 직업 : 현 변호사, 전 정부직 공무원, 전 검사
- 소속 : 현 변호사김정길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법무부장관(49~53대)

- △ 6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제 2회 사법시험 합격
- △ 65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사법연수원의 전신) 수료
- △ 66년 육군법무관 활동
- △ 69년~95년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및 검사장 역임
- △ 86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 90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 95년~99년 변호사김정길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
- △ 99년~01년 제 49대 법무부장관
- △ 02년 제 53대 법무부장관

## 우리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된 소감은?

석좌교수는 사회에서 덕성이 있고 학식이 깊기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그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매우 영광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학업

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어제가 무궁개 격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스스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외대생들이 21세기 세계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록 영양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 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함양하고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외대의 교육 이념이 매우 마음에 든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정치이념이자 경제생활 원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다. 또한 개개인마다의 천부적인 자질인 개성을 중요시하는 자주성과 국가와 세계발전에서 이바지 한다는 공공성이 결합돼 있다. 이러한 이념을 통해 외대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법조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외교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지만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행하지만 싸움과 투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고 법과 질서에 관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과 낙선에 따라 그 행방이 달라지는 정치인보다 법조인이 되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다.

## 검사부터 시작해 각 검찰청 검사장직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법조계 활동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검사 활동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두 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친한 사람의 조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내게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했지만 그 이후로 관계가 끊겨버렸다. 직접 때문에 인간 관계를 포기해야 했던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 한 번은 의료사고로 죽은 아이의 부모님과 의사간의 의료분쟁 사건의 경우였다. 이때 처벌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양측을 직접 설득해 해결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게는 매우 의미 있었던 경험이였다.

## 3년여동안 법무부장관에 재직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법무부는 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행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규명해서 문제를 소출한다. 또한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범죄와 폭력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엄무였다.

우선 '기초질서지킴이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치부터 지키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도덕성이 발휘되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더불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21세기에 걸맞는 IT 및 영어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중대시했다. 그 이후 교도소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수감생들이 출소 후 모여 벤처 회사를 만드는 등 사회에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후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죄수들의 자각증 취득 현황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 제 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고 들었다. 사법시험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과 현재 사법시험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모든 것이 변했다. 초기에는 생활환경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단조로웠지만 국가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그 과정에서 사법시험제도 역시 보다 복잡하고 짜임새 있는 형태로 변화했다.

사법시험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학력이 어떠한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문영역에 대한 내용이 요구됐는데 이에 대해 좀 더 보완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 얼마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인이 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부터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다. 사법계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로스쿨은 미국제도이다.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사법에도 폭넓게 적용된 것이다. 사법의 본질은 진실을 발견하고 책임을 따져서 실상을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재판은 실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득시키는 과정이다. 로스쿨은 이러한 활동에 효율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식되지 못해 오히려 여지가 많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다녀와서 본 것이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주일식 사법교육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 위주의 교육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교육 방식이 로스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세계 흐름에 맞춰서 사법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공회 등 사법계와의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법구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 이제 곧 법과대학에서 강의의 하계 월턴 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말해 달라.

앞으로 내 전공 분야인 세법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고 법과대학 및 학교측과 이야기해서 외대에서 원하는 바대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법조인은 국가에 영향을 기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인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외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외대와 좋은 인연을 맺었으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무경험담이나 지식 등을 알려주고 더불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한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실패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게 하고 싶은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몇가지 기준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학생들도 외대의 좋은 교육이념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 외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많으므로 학교생활에 좀 더 충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대학시절에 자신의 인생과 계획에 대한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처마 밑 물방울이 들을 뚫듯이, 어떤 일이나 자신의 정성을 다해 열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능력을 기르되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후배 네트워킹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이 배울 점 많은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길 바란다.

글 홍은미 기자 denebola@nuls.ac.kr  
사진 김대석 기자 sucker@nuls.ac.kr



▲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본보 홍은미 편집장(오른쪽)

## 학제개편, 세민전, 선거, 공익소식...

민족자주론은 외대학보

외대안의 내비게이션  
외/대/학/보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일들.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헤매셨습니까? 외대학보를 펼쳐 보세요. 외대학보 기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못찾겠다 피꼬리

숨겨진 취재본능을 참을 수 없는 사람!  
학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

어서 나와라

외대학보 78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원서접수 : 학생회관 외대학보사  
(서울 117호, 용인 212호)  
10월 6일(토) 까지